

고객 쉽터·특화거리 조성 ... 양동 건어물시장 제2의 도약

중기청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선정 4억4천만원 투입 정문 출입구 이미지 조형물 설치하고 공동상품 개발

양동 건어물시장이 새단장을 마치고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2일 양동 건어물시장상인회(회장 이명근)는 '건어물 특화거리 조성 및 기념비' 개관식을 했다.

양동시장에는 흔히 양동시장, 북개상가, 수산시장, 건어물시장, 닭전길시장, 산업용품시장, 경열로시장 등 7개 시장이 모여 있다. 이중 건어물시장은 중소기업청의 '2016년 전통시장 경영혁신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로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에 선정돼 시장을 정비해 왔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중소기업청과 서구청이 지원, 진행하는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4억4000만원이다.

사업 기간동안 건어물시장은 전통시장의 고유한 개성과 특색을 발굴, 주민생활형 특화시장으로 육성되고 있다.

주요 추진 내용은 ▲건어물 특화 거리 조성 ▲건어물 특화전열 환경 개선 ▲공동기획상품개발 ▲시장 브랜드 개발 ▲매주축제 등이다.

건어물시장 정문 출입구에 이미지 조형물을 설치하고, 공공미술을 포함한 고객 쉽터를 조성했다. 포토존·쉽터·조형물을 하나로 묶은 디자인과 트리아트 형태의 고객선 그리기 등 건어물 특화 거리를 조성했다.

또 공동상품을 개발하고, 해물다시백, 김자반 상품 등을 만들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양동시장에서 열린 '매주축제-양동 칠맥파티'는 7개 시장별 먹거리를 선보이며 지역민은 물론 타 지역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양동시장에는 농산물, 수산물, 공산품, 기타 물품을 취급하는 점포가 1천여 개 있다. 점포수



양동 건어물시장을 대표하는 상징물.

는 양동시장(634), 북개상가(361), 수산시장(100), 닭전길시장(146), 건어물시장(129), 산업용품시장(181), 경열로시장(73) 등이다. 상인 회원수는 1200여명이며 종사자수도 3000여명명에 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22일 중소기업청의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을 통해 새단장 한 양동 건어물시장에 소비자들이 몰려들었다.

문화와 예술이 머무르는 'ACC 디자인호텔' 문 열다

동구 금남로에 지상 11층 규모 넓은 주차공간·연회장 갖춰 지역 작가 위한 카페 갤러리도

광주 동구 금남로에 23일 ACC 디자인호텔(대표 임충섭)이 문을 연다.

ACC 디자인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1층에 총 객실 76실 규모로 지어졌다. 주차공간도 넓다. 주차하기가 까다로운 시내인 점을 감안해 건물 지하는 물론 별도 주차 타워를 갖췄다.

로비 및 외관은 검은 바탕에 흰색 조명을 강조해 돋보이고, 객실은 은은한 아이보리색 조명이 모노톤의 대리석과 어우러졌다.

1층에 비즈니스센터와 로비, 그리고 카페 겸 갤러리가 있고 2층에는 고급 일식당과 100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연회장을 마련했다. '이름 뿐인' 비즈니스호텔들과 달리 3층에는 업무 미팅을 할 수 있는 회의실 공간도 확보했다. 이 외에도 행사가 많은 동구인 점을 감안해 별도의 VIP실을 설치했다.

지상 10층에는 라운지바와 야외 풀장이 있어 파티 열기도 좋고 12층 루프탑에는 실외웨딩, 와인 파티 등의 행사 시설을 갖추고 있다. 라운지바는 숙박객을 위한 조식과 양식 코스요리로 준비한다. 지하의 1개 층은 향후 수요를 감안해 연회장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모든 스위트룸에는 월풀 욕조가 기본으로 들어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 문화가 곁들여진 ACC 디자인호텔이 23일 문을 연다.

가 있고 '게스트하우스' 형태로 여럿이 파티를 벌일 수 있는 객실도 있다. 지상 11층 스카이라이프 룸에서는 환하게 트인 넓은 테라스에서 무등산 자락을 따라 광주 도심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임충섭 대표는 "왕성하게 활동하는 지역 작가들이 많지만 자금난처럼 현실적인 문제를 겪는 이

들이 많다"면서 "호텔 카페 갤러리에서 전시회 등을 추진, 이들의 작품을 지역에 소개하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호텔의 이름은 예술(Art), 문화(Culture), 그리고 창조(Creation)에서 따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롯데아울렛 남악점, 무안사회복지관에 쌀·생필품 기부

롯데아울렛 남악점(점장 김병일)은 22일 "무안군 일로읍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을 방문하여 쌀과 생필품기부 및 배식봉사활동을 진행 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활동은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실천의 일환으로 나눔 문화 확산과 따뜻한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공헌사업으로 이어지게 됐다. 또 기부된 물품은 소외계층의 독거노인과 가정형

편이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될 예정이라고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은 전했다.

롯데아울렛 남악점 김병일점장은 "이번 쌀 기부를 통하여 우리의 작은 기부가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큰 힘이 됐으면 좋겠다"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지역 내 자원봉사 사랑나눔 활동을 통하여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롯데백화점 광주점 28일까지 '골프 박람회'

봄을 앞두고 활동복, 출·퇴근복 기능까지 더한 '레저룩'이 인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점 행사장에서 골프 박람회를 진행한다. 골프 클럽·용품부터 각종 의류까지 최대 70%할인한다.

가스텔바작, 와이엔글 등 유명 골프 패션 브랜드가 대거 참여해 티셔츠, 바지, 니트, 점퍼, 양말, 마스크 등을 선보이며, 마루망, 훈마 등의 골프 클럽 및 용품도 특가로 판매한다. 이외에도 브랜드 별

일정 금액 이상 구매시 양말, 장갑을 사은품으로 추가로 증정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원국 남성스포츠 Floor장은 "여성에 비해 남성들은 필드 레저와 캐주얼 스타일로 입을 수 있는 실용성 높은 아이템을 찾는 소비 패턴이 있다"며 "올해 캐주얼시장은 골프웨어가 이끌어갈 것으로 예상돼 다양한 이벤트와 마케팅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내 새끼는 내가 먹여 살린다!

아제 감성드와르

아빠색

매주 수요일 밤 9시 30분

주영훈 YoungHoon Joo 김구라 Gura Kim 이한위 HanWi Lee

CHANNEL